

미국의 불교 유입 초기 신조어들

해외불교칼럼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벌어진 1849년 골드러시(Gold Rush)는 사실상 북미 대륙의 다민족 대이동이었다. 구슬픈 미국인요 '플레멘타인'도 1849년 사람(Forty-niner)이라 불리던 그들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다.

동부지역으로만 밀려드는 유럽이민자에 끌려가던 미국정부는 '금짜라기 땅 서부'로 과대 포장된 무머를 조작 또는 편승하여 '노다지 한탕'을 꿈꾸는 그들을 서부개척과 인구분산, 그리고 전국군현발전에도 두루 활용하는 운옹의 묘를 발휘한다. 거기엔 미 대륙에 대대손손 살아온 '인디언'이란 토착민의 씨줄이와 땅 빼앗기가 따를 수밖에 없다.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하얀 선민'들에게 있어 복음의 은총을 못 받은 '붉은 야만인'들은 오히려 공존은커녕 분리제거의 대상이었다.

다른 한편, 때맞춰 본격화된 방대한 대륙 횡단철도와 서부항만 건설로 인해 수많은 동양 이민자들이 몰려든다. 예컨대, 엄청난 수의 중국이민자들은 작은 어촌에 불과하던 샌프란시스코를 거대 신도시로 바꾼 주역이다. 그들은 1854년 현지에 최초의 불교사찰을 세우는데 30여 년 후에는 그 수가 400여 개로 급증한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불교를 '이교도의 푸닥거리'쯤으로 내리깔며 절을 조스 하우스(Joss House), 즉 '분향소'라 빈정댄다. 아마도 그게 미국에 맨 처음 생겨난 불교관련 신조어 같다. 그처럼 미국사회에 나타난 신조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0년대 후반의 비트 불교(Beatnik Buddhism)다. 기독교적 기준가치관을 거부하는 비트 세대(Beat Generation), 그즈음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여 '세계 제일'을 자랑하던 미국의 제면을 몽개버린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



티벳한 스님은 미국에 불교를 전하며 '입세불교'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다. 사진은 티벳한 스님의 명상 수행.

트니크(Sputnik), 그리고 불교(Buddhism)가 결합된 이 말은 <미국판 문화혁명>의 본질을 상징한다.

또한 이 신조어는 제정러시아 말기의 '브나로드 민중운동'의 못 다한 원혼(冤魂)이 냉전시대의 미국에 다시 나타난 격인 '비트 운동', 그 모태(母胎)가 바로 불교임을 명증한다. 좀 더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패전국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선사가 컬럼비아 대학의 객원교수로 잠선수행과 불교 강의를 시작한다. 당시 그가 소개한 불교의 원용상생과 공존철학은 기독교적 양분사고와 선민의식에 일대 충격을 가하는바, 이내 컬럼비아대학은 비트 불교의 산실이 된다. 비트 불교는 현대판 마녀사냥인 '메카시즘' 등 극단적 반공 및 미소전영의 양분 이데올로기에 몰입한 당대 기성세대에 반발하던 미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잭 케루악, 앨런 긴즈버그, 윌리엄 버로 우즈, 개리 스나이더, 필립 웨일런 등 문인들이 비트 운동권의 핵심으로 그 중 일부는 미 정보당국의 요시찰 인물이었다. 컬럼비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Ivy League) 출신의 그 수재들은 비트 운동과 더

불어 현대 미국불교의 선구자다. 이어 1959년 월남전이 발발한다. 그 참상을 보다 못한 월남의 불자들이 속세로 뛰어든 즈음 티벳한 선사는 입세불교(入世佛敎)란 신조어를 만든다. 미국 등에서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로 알려지며 지금껏 반전, 환경보호, 인권옹호 등의 핫블로 이어져 온다.

그 후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Dalai Lama Renaissance)란 말이 새로 나왔다. 이는 달라이 라마라는 개인보다는 하나의 '정리된 인격체'로 표상되는 동양적 공존가치관을 뜻한다. 또한 불교의 상생연기(相生緣起)의 인본철학이 아직껏 중세 기독교적 암흑시대(Dark Ages)의 양분배타(兩分排他) 사고에 갇힌 서구사회를 일깨운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를 계기로 종교적 독단에서 벗어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시작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불연을 맺게 된다. 신조어란 반짝 지나가는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라 일련의 지속현상에 대한 압축적 묘사다. 따라서 앞서 말한 신조어들을 통해 우리는 미국불교의 흐름(trend)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럼 요즘엔 무슨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성휴 스님

출처: Buddhism in America, Beatnik Buddhism.

“승리는 나의 업” 자신감 충만

월드 스타 불심도

필잭슨

불교와 연관된 얘기들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어느 장군이 결전에 나선다. 그런데 적이 막강한 걸 알게 된 그의 병졸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지레 겁을 먹는다. 전장으로 가던 길목에 작은 절이 나타난다. 행군을 중단시킨 장군은 불단에 향을 올리고 돌아서서 병졸들에게 은화 한 닢을 들어 보인다.

“내가 이 은화를 던져 만일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하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 모두 도륙을 당할 것이다.”

그의 손가락에서 튀겨진 은화가 햇빛에 반짝하더니 이내 그의 손바닥에 떨어진다. 병졸들은 짐을 꾸려대며 그의 말을 속속히 기다린다. 장군이 득의의 미소를 짓는다.

“보라, 앞면이 나왔구나!” 그러자 병졸들은 함성을 외치며 적진으로 돌진한다. 그리고 이긴다. 승전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그의 참모가 말한다.

“각하, 세존의 기피가 정녕 영험하시옵니까?”

“아, 그럼!”

장군이 싱긋 웃으며 그에게 그 은화를 툇 던진다. 참모의 입이 떡 벌어진다.

“어!? 은화의 양면은 똑같았다. 필잭슨은 승부사다. 앞서 말한 장군처럼 ‘이기는 것’이 그의 책임이자 직업이다. 손자와 오자 등의 전범에 정통한 그는 기만술, 즉 속임수의 대가다. 그는 상황에 따라 여기저기 튀겨주는 리바운드, 정신 못 차릴 드리블과 후진페스 등 술한 농구 트릭들을 그대로 연륜플레이에도 써먹는다.

게다가 그는 참선의 체험도 역이용한다. 그는 상대를 혼란과 분산으로 몰아가는 전범을 참선에서 터득했다. 참선을 하는 이는 혼란의 원인을 잘 알고, 집중을 하는 이는 분산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그는 시합 이전부터 상대 팀의 기를 죽이거나 초조 또는 흥분하게 하는 등 평상심을 지니지 못하게 마구 혼들어대는 고도의 심리전을 편다. 그리고 때론 자기 혼잣말처럼 상대 팀을 실실 악물러가며 내부교란을 유도한다. 기자가 묻는다.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튼 난 패배를 감당할 능력도 경험도 없어요.”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상대 팀의 기선을 제압한다. “잘 아시다시피, 난 예전에 선수로 뭘 때나 코치를 하는 지금이나 늘 우승팀의 소속이죠. 그러다보니 승리란 게 마치 낯익은 친구 같아 보이죠. 좋은 실력 승리가 나의 카르마인 걸 난들 어찌 피하겠어요?”

기자가 되묻는다.

“자신감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글쎄요, 나야 뭐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 하는 것뿐이에요. 내 말을 재미있게 듣는 분도 있고 피식 웃방귀를 뿜는 분도 있을 테죠?”

그는 돌아서는 기자의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 한 마디를 툇 던진다. “아참! 내 말에 이빨을 부드득 가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죠?”

참선 체험으로 혼란의 원인 파악

상대팀 교란 시키는 심리전 구사

이런 말은 시합 직전 극도로 신경이 곤두선 상대 팀을 아예 돌아버리게 할 수도 있다. 다른 기자가 묻는다.

“농구에서 가장 신나는 부분이 뭔가요?”

“오늘처럼 상대 팀의 홈코트에 와서 이기는 거죠. 적진에 들어서서 이기면 진짜 기분 좋죠. 우리 팀한테 나 짜짜 홈런과 낮이 달아난 관중을 홈코트에 남겨둔 채 우리끼리 리무진버스를 타고 신나게 공방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는 좀 힘드실 텐데요.”

“글쎄요, 그래도 어디 연습게임만큼 힘들겠어요?”

여기 홈런쯤이야 자기 팀의 연습게임 상대도 못 된다는 소리다. 이는 팀 안팎을 겨냥한 이중플레이인바, 순식간에 리바운드가 되어 자기 팀의 선수들에게 이렇게 전해진다.

“이기자! 꼭 이겨서 우리 팀 리무진버스를 타고 후딱 공방으로 떠나자.” 그와 동시에, 나아한 적수들에게 그 리바운드가 고속역회전을 하며 비수처럼 쏠릴 수도 있다. “허, 필잭슨한테 이번엔 우리가 깨질 차례인가?”

성휴 스님

獨 무스타파 차관 스리랑카 방문

독일 관광부의 파이츠 무스타파 차관은 최근 베를린 소재 불교사원의 빌라치에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동 사원이 독일인들의 스리랑카 불교체험관광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관광부의 임직원과 함께 방문한 그는 빌라치에 스님에게 독일인들이 스리랑카로 불교체험관광을 앞두고 동 사원에서 불교의 기본 지식과 참선을 예비 습득한다고 치하했다.

출처: DBV

日 남부 오키나와 사원 애견 화제

일본 남부 오키나와 섬의 정계년 사원에서 키우는 애견 한 마리가 최근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살짜리 수컷인 ‘코난’이란 이름의 이치와와는 음식이나 산책이 필요할 때면 뒷발로 서서 두 앞발을 코앞에 다스곳이 모으는가 하면 스님이 예물을 할 때도 곁에 나란히 앉아 이처럼 합장을 한다.

그 희한한 사진들이 매스컴에 뜨자 일본 본토에서도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이 몰려들고 사원

방문객도 지난 2월부터 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출처: ABN

美 태국사원서 화재 대응전 소실

3월 23일 오전 10시 미국 알래스카 어빙턴 소재 ‘세계불교 태국사원’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시설 일부를 태우고 45분 만에 진화했다. 세인트 엘모 소방구조대의 마빈 소장은 이 화재로 대응전이 소실되고 부속 건물도 2동이 심히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다.

출처: BCT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 have enough discipline for both of us

나는 우리 두 사람 몫의 절제를 지니고 있어요



An American student confided in her Japanese zen master, “I have tremendous feelings of love for you and it’s confusing me.” “No worry,” he said. “You can let yourself have all the feelings you have for your master. I have enough discipline for both of us.” At the story, a Korean monk chuckled, “Oh, he must be a super master to have discipline for two selves while I just cannot afford it for my own self.”

미국인 여학생이 일본 선사에게 수줍게 살짝 고백했다. “저, 실은 선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맘을 지니고 있어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 스승에게 모든 감정을 지내도 돼요. 나는 우리 두 사람 몫의 절제를 넉넉히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어느 한국 스님이 깔깔 웃었다. “가참, 대단하신 분이로군. 난 일인분도 못하는 절제를 이인분씩이나 하시다니.” 반얀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 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 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마찰없

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범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서”(상,하권)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신수 비결”

- 2008년의 운세를 각 개인별로 감성
- 정가 : 2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교묘벨트 옆

봄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고무신코 만행화

<p>조각무명</p> <p>●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p>	<p>사부대중선물</p> <p>●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p>
<p>특무명</p> <p>●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p>	<p>3-1밴드</p> <p>●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p>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 거리)